

담배에 대한 의견은 한국에서도 상당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소에서 금연을 하고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인구는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중·고생 흡연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흡연자가 늘어나는 것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흡연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담배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몸에 나쁠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을 할 경우에는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담배를 피우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흡연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기호식품처럼 여겨져 왔고, 이것으로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리를 뺏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금연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 등의 강제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때와 장소를 가려서 흡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느정도 자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합니다.